

## ● 골프 준비물: 태국에서 라운딩 시 꼭 필요한 것들 ●

보편적으로 신발과 모자, 장갑 등은 들고 오시고, 볼은 골프장에서 로스트 볼구입, 클럽은 한국에서 직접 들고 오시거나 태국에서 전날 렌탈 하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티와 마커, 그린보수기 등은 캐디가 가지고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 골프 클럽 및 가방(caddy bag)

- 골프 클럽 및 캐디 백은 필수 용품이며, 1인 1bag이 원칙입니다. 캐디백이나 보조백(하프백)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백에 두 사람의 클럽을 같이 넣고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 클럽 수는 14개 까지만 허용되나, 이것은 정식 경기 룰이므로 실제 일반 라운딩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자신의 백에는 알아보기 쉽게 이름표와 전화 번호가 적힌 네임 tag를 붙여놓는 것이 좋으며, 호텔에서 컨시어스에 맡길 때도 유용합니다.

-클럽을 태국현지에서 렌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골프장 현지에서 렌탈 하는 방법과, 라운딩 이전 렌탈 클럽 에이전트를 통해 예약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의 렌탈은 클럽을 직접 들고 가실 필요가 없어 편하지만, 좋은 클럽은 매우 비싸고, 보통의 클럽은 매우 오래 된 좋지 못한 클럽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므로, 클럽이 필요하시다면, 태국 현지의 렌탈 회사를 이용 라운딩 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 까지 호텔로 배달되며, 차량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또는 공항으로 배송 후 기타 지역으로 이동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태국 현지업체의 클럽 렌탈 현황은 한국과 달리 다양한 브랜드의 클럽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렌탈 가능 클럽으로 국산 렉스필드, . 캐러웨이, 혼마 정도이며, 중국 또는 대만산 가짜 클럽도 많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 2. 골프화

사용하시던 골프화는 가지고 오시는 것이 편리 합니다만, 렌탈도 가능합니다

골프화는 골프장에서 그린 보호를 위해 쇠 스파이크 골프화는 입장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고무 스파이크로 골프화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가끔 운동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골프장에 따라 골프화만 입장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서 빌리시는 경우에는 골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100-150바트 사이이며 보증금으로 500바트 정도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이 경우 나중에 신발을 반환할 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골프볼

볼은 최소 10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초보자는 값싼 볼을 20개 이상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 볼은 클럽하우스 골프 샵 및 각 홀 중간의 그늘집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New Ball은 한국보다 가격은 약간 저렴하지만 이것보다는 봉지에 5-8개 정도에 100바트 하는 Losy Ball 을 구입하시는 편이 경제적입니다.(볼이 안 좋을수록 많이 들어 있으며, 괜찮은 볼은 보통 4-5개 들어 있습니다.)

가끔 그늘집에서 로스트 볼을 판매하지 않고 클럽하우스에서만 구입 가능한 골프장이 있으므로, 라운딩 전에 볼은 항상 넉넉히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태국 골프장은 워터 해저드가 상당히 많으므로 초보자는 20개 정도 넉넉히)

방콕 시내에서 기타 골프 악세서리를 쉽게 구입하시는 방법은 가까운 백화점 내 골프 매장을 찾는 방법과 Super sports, sports world내에 골프코너에서 구입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최대의 골프 매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실롬 살라댕 지상철 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Taniya Plaza가 있습니다.

### 4. 장갑

손에 꼭 맞는 양피 장갑 또한 필수용품이며, 들고 오시거나 이곳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만약 태국에서 구입하셔서 라운딩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골프장보다는 백화점이나 골프매장에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할인도 되므로 미리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용 양손 장갑도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Wilson, Footjoy 등이 350-450바트 내외 Titleist 종류가 500바트 정도 입니다.(할인가격)

### 5. 보스톤 백 또는 옷가방

운동 후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올 수 없으므로 여분의 갈아입을 내의, 양말 등을 넣을 간단한 옷가방이 필요합니다. 보스톤 백은 밑에 골프화를 따로 넣는 공간이 있으나, 간단한 옷가방도 괜찮습니다.

양말은 골프전용 양말까지 나와 있으나, 꼭 그렇게 고급이 아니더라도 조금 두꺼운 양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6. Tee

샷을 용 짧은 티와 긴 티를 서너개 정도 준비합니다. 나무티는 보통 한번 사용 후 부러지는 소모품이므로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에서는 거의 플라스틱 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캐디들이 기본적인 모양의 티(긴티와 짧은 티)는 가지고 있기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신만의 독특한 티를 사용하신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7. 양산용 우산

태국은 햇볕이 매우 따가우므로 양산용 우산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태국은 열대성 폭우(스콜)가 자주 내리는 편이므로 비가 내릴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렌탈 가능하며, 가격은 약 100바트 전후 입니다

## 8. 기타

**모자:** 창이 넓은 것이 좋겠죠? 햇볕이 강하므로 필수품입니다.

**썬크림:** SF 50이상 이 효과적입니다.

수건, 일회용밴드, 잔디 보수기, 간이 의자 ( 가끔 주말에 인기 좋은 골프장이라면 상당히 라운딩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자가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겠죠?) 마커 등

### ○ 여행 준비물 체크 리스트

체크항목	준비물 내용	비고
■ 여권 / 비자	해외여행의 필수품,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사진이 있는 1면은 복사해서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해 둔다.	
■ 항공권	출국, 귀국 날짜, 여정,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복사본을 보관해 둔다.	
■ 한국돈	공항간 이동시 교통비, 공항세 지불 등에 필요한 돈	
■ 현지돈	팁, 쇼핑, 선택관광, 기타 개인적인 경비 등에 필요한 돈	
■ 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1장 정도 준비한다	
■ 여행자보험증	단체여행의 경우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개별여행인 경우에는 사고를 대비해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예비용 사진	여권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2~3 장 정도 준비한다.	
■ 소형계산기	환율계산이나 쇼핑, 예산 산출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전화카드	한국으로 전화걸 일이 많은 분들은 구입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작은 가방	큰 가방과 분리해서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있으면 편리하다.	
■ 필기도구/수첩	여권번호, 여행자수표번호, 신용카드번호, 현지주요기관 등의 번호를 메모해 두고, 현지에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메모할 수 있는 필기도구를 가져간다.	
■ 칫솔과 치약	해외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수건과 비누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용으로 간단하게 준비해 간다.	
■ 모자 /선글라스	여름이나 열대기후 여행시에는 필수	
■ 수영복	열대기후나 수영장, 해변이 있는 여행지에서는 필수품	
■자외선 차단,크림	여름이나 열대기후 여행시에는 필수품	
■ 편한 신발	여행에는 걷는 시간이 많으므로 편한 신발이나 운동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비치샌들	열대기후나 해변이 있는 여행지에서는 운동화보다 낫다.	
■ 화장품	여행용이나 소포장용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 빗 / 드라이어	호텔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전압과 플러그를 확인하고 가져간다. 플로그는 호텔에서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다.	
■ 면도기	호텔에 1회용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전압과 플러그를 꼭 확인한다.	

체크항목	준비물 내용	비고
■ 셔츠/바지	편한 것으로 여행기간에 맞게 준비하며, 되도록 적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 재킷 /가디건	냉방차, 비행기, 비올 때, 밤에는 기온차가 생기므로 가벼운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속옷	호텔 등에서 세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여행기간에 맞게 준비한다.	
■ 편한 신발	여행에는 걷는 시간이 많으므로 편한 신발이나 운동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생리용품	현지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비상약	평소에 복용하는 약, 지사제, 소화제, 신경안정제, 진통제, 말미약, 감기약, 피로회복제, 1회용 밴드 등	
■ 비닐봉투	빨래할 옷, 젖은 옷, 잡동사니를 넣기에 편리하다.	
■ 물통	휴대용으로 준비하거나, 생수는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 침낭	장기 배낭여행자의 경우 야외에서 숙박할 경우 필요하다.	
■ 세제	장기 배낭여행자의 경우에는 소포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손톱깎이/귀이개	휴대용으로 작은 것을 가져가면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 다용도칼	귀이개는 수영장이나, 해변이 있는 경우 요긴하게 쓰인다.	
■ 알람손목시계	바쁜 일정 중에 스케줄 관리에 편리하다.	
■ 사전과 회화집	개별여행자에게는 필수품, 휴대하기 편한정도의 것을 준비한다.	
■ 한국음식	이국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튜브 포장된 고추장 정도를 가져가면 좋다.	

- 적시된 준비품목은 여행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취향과 여행지에 따라 적절한 품목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 해외여행, 이것만은 꼭 지키자

‘현대인의 새로운 종교로 자리잡은 것이 관광산업이다’ 라고 한 사진작가 마틴파의 말처럼 정신없이 변해가는 생활 속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상 탈출이다. 삶의 가치관이 변한 현대인에게 새로운 곳, 문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종교나 다름없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잦은 여행경험으로 성숙한 매너를 보여주는 멋진 여행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 호텔에서

동남아, 일본, 미주, 유럽 각국의 호텔이 우리의 호텔과 같을 수는 없다. 호텔수준과 시설물을 우리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불편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내 여행조건에 맞는 호텔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집 수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제기하는 불만에 ‘한국인만 불평 불만이 많다’ 고 하는 현지 호텔인의 말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

### ● 식당에서

외국의 경우 보통 안내받은 좌석에 앉아야 하는데 꼭 다른 좌석에 앉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단체좌석에 대한 불만, 구석진 곳에 배정한다는 피해의식 등으로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괴롭다. 그러면서도 식당에서 파는 주류가 있는데 가져 온 술을 적당히 눈치보며 마시고, 아침 뷔페에서 물이나 과일 빵 과자류 등을 챙겨 가고, 번잡한 행동 등을 한다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힘들다.

### ●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이 안 되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고 작품에 손을 대는 행동, 각국인이 모두 모인 관광지에서 뛰고 소리지르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들, 연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행동, 소리쳐 일행을 부르는 일... 외국인의 시선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차내에서 냄새가 심한 오징어, 쥐포, 아이스크림 등을 먹고 휴지를 여기저기 버리는 행동, 앞좌석만을 고집하여 좌석 잡기 경쟁으로 아침 일찍 나오고 전날 미리 좌석을 확보해 놓는 행동, 이 또한 모두가 즐거워야 할 여행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 ● 사고 발생시에는 이렇게 하세요

### \* 여권분실

-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 ◇ 사진
- ◇ 여권 분실증명서
- ◇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 ◇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 ◇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항공권분실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 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 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이때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 ◇ 항공권 번호
- ◇ 발권 년월일
- ◇ 구간

\* 전문 신청 및 AUTH 확인 해당 항공사의 예약기록을 통해 하며 재발급 비용은 티켓 1장당 US\$50이다.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공사(본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다.

✳ 여행자수표분실



여행자수표앞면



여행자수표뒷면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 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 시간 후에 희망 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 수하물분실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나서 24 시간 후에 희망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공항에서 'BAGGAGE CLAIM' 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 항공기 지연 또는 파업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ADDITIONAL SUPPLEMENT 을 항공사에서 제공키로 되어 있다.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한다 - 파업의 경우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CLAIM 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에는 타 항공편으로의 ENDORSE 를 받는다.

### \*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T/C 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준다.

TC 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

- ◇ 피해자의 성명
- ◇ 병원명
- ◇ 상태

회사측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 등으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한다.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 \* 절도사고를 당한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 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 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 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 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 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POLICE REPORT

- ◇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 ◇ 여권 COPY
-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번호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 ◇ 현금
- ◇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 \* 여행 중 질병의 경우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제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백만원으로(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천만원 가입시)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의사 소견서
- ◇ 치료비 영수증
- ◇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 ◇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